

『眞心直說』의 著者에 대한 再考察

A Study on the Author of 『Jinsim-Jikseol』

남권희(Kwon-Heui Nam)* · 최연식(Yeun-Sik Choi)**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知訥 사상체계와의 차이점 |
| II. 知訥 찬술설의 서지적 검토 | 1. 『眞心直說』과 3門의 관계 |
| 1. 知訥 찬술설과 그 근거 | 2. 마음에 대한 이해의 비교 |
| 2. 새 판본과 知訥 찬술설의 문제점 | IV. 맺음말 |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서지적 측면과 사상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지눌의 저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진심직설》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동안 『진심직설』을 지눌의 저술로 간주한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판본들에서 『진심직설』이 지눌의 저술인 『수심결』에 붙어 있고, 그 자체에 역시 지눌의 저술인 『계초심학인문』을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다는 체제가 큰 근거로 작용하였다. 새로운 판본과의 비교를 통해 기존 판본들의 체제와 편집상태는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후대에 발생한 임의적 편집의 결과라는 것과 사상내용도 지눌의 다른 저술에서는 3門체제로 정리되는 것과 달리 『진심직설』의 사상은 3門의 사상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마음의 본질과 體用觀 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의 결과를 기초로 『진심직설』이 지눌의 저술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눌의 사상에 대한 검토에서 『진심직설』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Jinsim-Jikseol was written by Ji-Nul or not. The book which were known so far have been thought in that they had a Susimgyul and were attached Gecho-Simhak-Inmun. But we now know that the edited state of known were not the reflection of those times but the result of artificially editing by people later. The contents of Jinsim-Jikseol are differed from that of others in understanding of the system of Sam-Mun and Cheyungwan. The results based on this study is that the possibility which Jinsim-Jikseol is not work of Ji-Nul is quietly high. And it will be help to understand the ideas of Ji-Nul more systematically and articulately.

* 慶北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

**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講師

1) 이 논문은 경북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Post-Doc.) 과제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I. 머리말

宇宙萬法の 근원을 眞心으로 얘기하며 그 眞心の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眞心直說』은 知訥 禪思想의 요체를 보여주는 대표적 저술의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다.²⁾ 하지만 이 책은 내용에 있어서 지눌의 다른 저술들과 상호 영향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지눌의 入寂 1년전 저술로 자신의 사상을 종합정리하고 있는 『법집별행록절요사기』에는 다른 저술들의 주된 요지가 반복되면서 그의 선사상이 분명하게 정리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진심직설』의 내용과 통하는 부분은 발견하기 힘들다.³⁾ 더욱이 『진심직설』에는 眞心の 본성과 기능 등만이 설명되고 있을뿐이어서 지눌의 사상체계인 성적등지문, 원돈신해문, 간화(경절)문 등의 3門 중 어느 것 과도 직접적인 이론적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필자는 『진심직설』이 지눌의 사상체계 혹은 사상발전 과정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다른 저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져왔고, 『진심직설』의 판본들을 조사하면서부터는 이 책이 지눌의 저술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 판본들의 편집상황을 볼 때 지눌의 저술이 아니라고 얘기할 근거가 분명하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기존에 알려진 판본과는 다른 새로운 판본을 발견하고서 지눌의 저술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지적 측면과 사상적 측면에서 이 책을 지눌의 저술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오랜 기간 지눌 사상의 요체를 드러낸다고 평가받아온 책을 지눌의 저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지만 지눌의 사상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2) 『眞心直說』은 지눌의 저서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얘기되지만 실제 이 책의 사상적 특질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다음의 연구들이 『진심직설』의 내용을 통해 지눌 선사상의 요체를 이해하려는 대표적 논문들이다.

이중익, 1987 「진심직설에 대하여」 『불일회보』 6월, 7월호

鎌田茂雄, 「진심직설의 사상사적 의의」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

頓然, 1988 「진심직설과 涅槃無名論 - 頓悟漸修의 사상배경」 『수다라』 제3집, 해인강원

이창구, 1999 「진심직설을 통해서 본 眞心과 悟修의 구조」 『구산논집』 제3집, 구산장학회

3) 최연식, 1999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를 통해 본 普照 三門의 성격」 『普照思想』12

II. 知訥 찬술설의 서지적 검토

1. 지눌 찬술설과 그 근거

『진심직설』이 지눌의 저술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말부터였다. 그 이전에는 이 책의 존재가 국내에 알려지지도 않았었는데, 李忠翊이 청나라에서 『진심직설』을 구해와 1799년에 송광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하면서 지눌의 저술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송광사본에 붙어 있는 이충익의 발문은 당시의 사정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普照스님은 曹溪 修禪社의 開山初祖로 法寶를 널리 퍼서 우리나라(震朝)에 은택을 주었다. 스님의 저술은 모두 유통되고 있지만 내가 燕都의 대장경에서 구한 『修心訣』과 『眞心直說』 두 책만은 우리나라의 사찰에 전하지 않고 있다. 鶴巖 奇師가 法華經을 雕板함에 本社(송광사)에서 간행하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때에 드러남과 감추어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책의 뒤에 淸나라 學士 明珠의 大藏經을 간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康熙 己未年(1679)이다. 그런즉 辛酉年(1681)에 대장경을 실은 배가 荏島에 도착한 것도 明珠 學士의 法施의 결과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禪子들이 그 대장경을 翻刻하여 宣布하면서 즐기면서도 오랜동안 누가 그 선물을 주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이에 아울러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오늘 이 두 책이 우리나라에 다시 유통된 것도 明珠 學士의 공덕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嘉慶 己未年(1799) 7월 일에 水觀居士 李忠翊이 기록함.⁴⁾

이 발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때 이충익이 구해온 책은 1679년에 청나라의 大學士 明珠가 부인과 함께 발원하여 간행한 대장경 중의 일부로⁵⁾ 한 책에 『진심직설』과 『高麗國普照禪師修心訣』 그리고 僧肇의 『寶藏論』 등 3종류의 저술이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⁶⁾ 각 저술의 말미에는 저본이 된 책의 간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기 1594년(보장론)과 1602년(수심결), 1606년(진심

4) 普照師 爲曹溪修禪社開山初祖 弘闡法寶 雨于震朝. 其所詮著 悉已流通 而修心訣 眞心直說二書 自燕都藏中 爲余所獲 而叢林無傳焉. 鶴巖奇師 乃於法華雕板之次 請以刊之本社 滋豈非時有顯晦而然歟. 卷末有淸學士明珠 印造大藏事記 在於康熙己未 則辛酉海舶之載經 泊荏島 當是明珠學士法施之餘力也. 東國禪子 翻刻宣布享其賜而不知其人久矣 余故率連記之 今日二書之復行於東國也 明珠學士 亦當爲功德無疑焉. 時 嘉慶己未七月日 水觀居士 李忠翊 識

5) 말미에 붙은 明珠의 기원문은 다음과 같다.

“奉 佛弟子大學士明珠 室覺羅氏 謹發誠心印造 大藏經於千佛寺 至誠供養 願將此功德 溥及於一切 我等與衆生 同歸無上道 康熙拾捌年己未卯月”

이충익이 밝힌 것처럼 1681년에 서해안 임자도에는 많은 양의 경전을 실은 책이 정박한 일이 있었는데, 시기적 근접성으로 미루어 실제로 明珠가 간행한 대장경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6) 국립도서관에 이충익이 가져온 책을 石版影印한 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한-21-339) 이 중 『眞心直說』과 『修心訣』은 『한국고승집2-지눌』 (1974, 불교학연구회편)에 다시 영인 수록되어 있다.

직설)에 강남지방에서 간행된 책을 저본으로하여 중간된 것이었다.⁷⁾ 또한 각 저술에는 敦八(수심결)의 敦九(진심직설), 敦十(보장론)의 函次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函次들이 『大明三藏聖教北藏目錄』 및 『藏版經直畫一目錄』 등의 明版 大藏經 목록에 수록된 이 책들의 함차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⁸⁾ 이 책들은 明版 大藏經 그중에서도 嘉興藏을 저본으로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⁹⁾ 청나라의 대학사였던 明珠는 강남 지방에 전하던 명대의 대장경을 저본으로하여 대장경 1부를 간행하였고, 그 책을 이충익이 구하여 국내에 소개하였던 것이다.

이충익은 위 발문에서 자신이 『수심결』과 『진심직설』을 처음 국내에 소개한다고 하였지만 그의 얘기와 달리 『수심결』은 조선 초기 이래 수 차례에 걸쳐 간행되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책이었고 『진심직설』만이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된 책이었다. 또한 이충익은 『진심직설』이 『수심결』과 함께 지눌의 저술이라고 하였지만 그가 구해온 책의 본문에는 어디에도 『진심직설』이 知訥의 저서임을 밝히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책의 완전한 제목은 ‘古德禪師真心直說’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古德은 과거의 高僧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특정한 저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저자를 모르기 때문에 붙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앞뒤에 붙은 저자의 서문 및 1447년과 1469년 重刊 당시의 重刊序와 重刊跋 등에도 이 책 저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보통 중간의 서문 혹은 발문 등에는 저자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간의 서와 발에 저자에 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 책을 중간하던 15세기 당시에도 이 책의 저자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같은 책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수심결』의 경우 제목을

- 7) 禹航居士嚴調御嚴武順嚴勅 施刻此卷 釋淨縱 對徐晉書 鄒友刻 萬曆壬寅六月 徑山寂照庵識 (수심결)
 新安善男子吳明貞 喜助刻真心直說一卷 上祝雙親 壽社增崇 入佛知見 普及法界含靈同願種智者 安城釋可震 對南昌萬承明書 上元栢之挺刻 萬曆丙午仲夏月 徑山寂照庵識 (진심직설)
 姑蘇來吳優婆夷法紀發心施旆刻 寶藏論一卷 祈父水思河福慧雙嚴 薦亡母吳氏超生淨土者 長洲徐晉書 建陽鄒友刻 萬曆甲午秋九月 武林能仁禪院識 (보장론)
- 8) 『昭和法寶總目錄』 第1卷(大正新修大藏經 卷87) 298쪽 및 322쪽. 한편 清代의 대장경 목록인 『大清三藏聖教北藏目錄』에는 위의 책들이 藝字函의 함차를 가지고 있다.(위의 책 386쪽)
- 9) 明代에는 건국초기의 洪武藏이래 9차례에 걸쳐 대장경이 조성되었는데, 『수심결』과 『진심직설』이 대장경에 편입된 것은 1584년에 판각이 완료된 萬曆北藏부터였다. 이후 1607년 이후 간행이 시작된 萬曆南藏의 續藏과 1589-1643년에 간행된 가홍장에도 계속하여 수록되었다.(萬曆南藏의 續藏의 경우에는 函次가 표시되지 않음) 明珠가 저본으로 사용한 책들은 간행 연도와 간행 지역으로 보아 嘉興藏의 일부로 추정되는데, 가홍장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方冊本으로 간행하였고, 浙江지역의 徑山을 중심으로 사찰들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徑山藏으로도 불린다.(椎名宏雄, 1993 『宋元版禪籍の研究』 大東出版社 309쪽 <明版大藏經一覽表> 참조) 한편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상백문고본 중에도 敦八과 敦九의 函次를 가지고 있는 명판 대장경의 『수심결』과 『진심직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들은 장정이 비교적 화려하고 折帖本의 형태를 하고 있어 萬曆北藏의 일부로 추정된다. 이 중의 『수심결』에는 다른 판본에는 없는 1447년의 중간발이 수록되어 있어 서지적 가치가 높다. 이 책들과 이충익이 구해온 책을 비교하면 몇 곳에서 글자의 차이가 보이지만 개원사본과 같은 판본상의 차이가 아닌 판각과정에서의 차이로 보인다.(자세한 비교는 뒤의 <부표 1>과 <부표 2> 참조) 이 책들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하여 국내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 판본이 국내에 유통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대 이후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高麗國普照禪師’라고하여 저자가 고려의 보조선사 즉 지눌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가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은 『진심직설』을 지눌의 저술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⁰⁾

이처럼 중국에서 구해온 『진심직설』 책 자체에 이 책이 지눌의 저작임을 나타내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18세기 이전의 지눌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에도 지눌이 『진심직설』을 저술했다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충익이 『진심직설』을 지눌의 저술이라고 단정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가 중국에서 『진심직설』이 수록된 책을 구했을 때 이 책이 지눌의 저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실제로 명나라 말기의 승려 智旭(1599-1655)이 편집한 『閱藏知津』에 『진심직설』을 지눌의 저술로 기록하고 있는데,¹¹⁾ 이러한 인식은 청나라 때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므로 이충익이 중국에서 그러한 정보를 듣고서 이 책을 지눌의 저술이라고 조선에 소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책의 제목과 서문, 발문 등에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이 책을 지옥이 『閱藏知津』에서 지눌의 저술로 간주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책의 편집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름 그대로 대장경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제집 성격의 책인 『閱藏知津』은 당시 유통되던 明藏에 수록된 책들 전체에 대하여 저자와 간기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명장에 수록된 『진심직설』의 편집상태에 이 책을 지눌의 저술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明藏에 수록된 『진심직설』은 지눌의 저술인 『고려국보조선사수심결』의 바로 뒤에 연이어 수록되어있을뿐 아니라 바로 뒷부분에 지눌의 『계초심학인문』과 蒙山 德異와 관련된 법어 3편(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東山崇藏主送子行腳法語, 蒙山和尚示衆)를 부록으로 실고 있는데, 『진심직설』의 저자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앞 책과 마찬가지로 지눌의 저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거기에 더하여 지눌의 저술인 『계초심학인문』이 부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쉽게 지눌의 저술로 간주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록으로 수록되는 저술은 본 저술과 특별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 『계초심학인문』의 저자인 지눌이 『진심직설』의 저자로 간주되기에 무리가 없었을 것이고, 순서상으로도 『수심결』과 『계초심학인문』 사이에 있는 『진심직설』의 저자를 지눌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열장지진』에는 『진심직설』의 저자를 ‘曹谿山 老衲 知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曹谿山 老衲 知訥’이라는 표현은 『진심직설』에 부록된 『계초심학인문』의 말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문제는 『계초심학인문』과 함께 『진심직설』

10) 이처럼 『진심직설』 자체에 저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대에 편찬된 대장경 중 초기에 간행된 日本의 續藏經에서는 이 책의 저자를 특별히 명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 『대정신수대장경』에서 처음으로 이 책의 저자를 知訥로 명기하고 있다.

11) 『閱藏知津』 卷42(『昭和法寶總目錄』 第3卷(大正新修大藏經 卷89, 1241쪽)

에 부록되어 있는 범어 3편이 지눌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만 이 범어들은 고려말과 조선초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친 蒙山 德異와 관련된 것으로 고려와 조선에서 널리 유행한 것이므로¹²⁾ 어쨌든 고려 혹은 조선의 불교계와 관련된 책으로 간주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편집상황을 고려할 때 지옥과 중국 불교계에서 『진심직설』을 지눌의 저술로 간주한 것은 크게 무리한 판단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자료의 상태를 보면 설혹 『진심직설』 자체에 저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구든 쉽게 지눌의 저서라고 추정하였을 것이다.

이충익이 『진심직설』을 지눌의 저술로 소개한 이후 조선 불교계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도 다분히 이러한 편집상태를 의식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충익이 구해온 책 역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판 대장경을 중간한 것이었고 따라서 책의 편집상태는 명판 대장경의 편집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진심직설』을 접한 조선 불교계에서는 설혹 그 내용이 그 동안 알고 있던 지눌의 사상과 차이가 있다고 해도 책의 편집상태로 보아 이 책을 지눌의 저술로 파악하는데 별다른 의심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결과 『진심직설』을 지눌의 저술로 보는 이해는 이후 조선 불교계에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 송광사에서 이충익이 구해온 책을 중간하면서 지눌의 저술임을 명기한 이후 불교계에서는 누구나 이 책을 지눌의 저술로 인정하였다. 그래서 1883년에 편집된 『法海寶筏』과 1907년에 편집된 『禪門撮要』에는 이 책이 知訥의 저술로서 수록되었고, 이후 지눌의 叢書 혹은 選書가 편집될 때마다 지눌의 대표적 저술로 수록되고 있다.

2. 새 판본과 지눌 찬술설의 문제점

1) 版本간의 차이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심직설』이 지눌의 저술로 간주된 것은 상당 부분 지눌의 저술인 『수심결』 뒤에 수록되어 있고, 또 다른 지눌의 저술인 『계초심학인문』을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는 이 책의 편집상태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편집상태를 제외하고는 책 자체에 저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이 책을 지눌의 저술로 볼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진심직설』의 한 판본은 지금까지 알려진 명판 대장경 계통의 판본들과는 편집상태와 내용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진심직설』의 저자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번호 '古M1798-17'의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는 이 책은 4針眼의 중국본으로

12) 조명제, 1999 「고려후기 『蒙山法語』의 수용과 간화선의 전개」 『普照思想』 12

1598년의 간기를 가지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소장 경위 기록에 의하면 1965년 한일 협정에 의거하여 일본측에서 반환한 도서 중의 하나라고 한다. 원본의 소장처는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는데, 마이크로필름으로 확인한 도서인은 '秘閣圖書之印'이며 겉표지에는 '子百九十六四七/一六四七〇'의 도서번호가 붙어있다. 표제는 『古德眞心直說』으로 되어 있으며 체제는 '古德禪師眞心直說序', 『고덕선사진심직설』, 『고려국보조선사수심결』의 순서이고 제일 마지막에 '萬曆二十六年 開元寺藏經堂 如岩等重刻'이라는 간기와 1錢에서 3錢까지를 낸 25명의 시주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이 책에는 명판 대장경 계통의 판본들에 수록되어 있는 重刊序와 跋이 없을 뿐 아니라 『진심직설』의 뒤에 『계초심학인문』과 동산 관련 법어들도 부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진심직설』과 『수심결』의 수록 순서도 『수심결』이 앞에 오는 明藏들과 달리 『진심직설』이 먼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이 책이 명판 대장경 계통의 판본들과는 계통이 다른 판본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이 책에는 다른 판본들과 달리 대장경의 函次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있어서도 이 책을 제외한 명판 대장경 계통의 판본들이 일부 글자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내용상 일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책은 도저히 같은 저본을 이용했다고 생각하기 힘든 정도의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진심직설』 第15節의 경우 제목까지도 다른 판본의 '眞心所往'과 달리 '眞心所住'로 나타나고 있다.(뒤의 <부표 1>과 <부표 2> 참조) 앞에서 본 것처럼 『진심직설』을 지눌의 저작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가 『수심결』의 뒤에 붙어 있다는 점과 『계초심학인문』 등이 부록되어 있다는 점 등이었다고 추정되는데, 이 책의 체제는 그러한 근거와 모두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 책이 보여주는 체제가 『진심직설』의 본래 모습에 가까운 것이고 명판 대장경 계통에 보이는 체제가 후대의 변경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당연시된 지눌 저작설은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개원사본의 간행연대는 1598년으로 명판 대장경 중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인 萬曆北藏(1584년 이전에 완성)보다 늦지만 그 저본은 오히려 명판 대장경의 저본보다 이른 시기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두 책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개원사본의 저본이 명판 대장경의 저본보다 시기적으로 앞섰거나 원형에 보다 가까웠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심직설』의 경우 개원사본에는 글자의 착오로 생각되는 부분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과 달리¹³⁾ 명판 대장경 계통의 판본에는 於一念須(頃의 잘못), 淨明(名の 잘못)經俱肱(脈의 잘못), (幻滅滅故탈락)非幻不滅, (不탈락)依形色, 作篋(筏의 잘못) 便(更의 잘못)不用, 命(승의 잘못)見 元(老의 잘못)華嚴 등과 같이 글자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眞心正信>의 앞부분에는 '故有樂果'가 불필요하게 첨가되어 있다.(자세한 비교는 뒤의 <부표

13) <부표 1>의 가장 마지막 항목인 '後所趣者'의 경우는 내용상 '身'이 붙은 다른 판본의 경우가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1권 제 2호)

1> 참조) 또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단어들도 개원사본의 경우가 보다 적당한 글자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⁴⁾

개원사본	韻出無心 張弓 磨鏡垢淨明現 如痴如瞶 上苑 無記 團圓 千聖興來 對治 一隻正眼
다른판본	韻出今時 拈弓 磨鏡垢盡明現 如痴似兀 上園 無計 團圓 千聖興來 對知 一隻正眼

이처럼 개원사본이 명판 대장경 계통의 다른 판본들에 비하여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은 전자의 저본이 후자보다 더 정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개원사본의 저본이 명장본의 저본에 비해 시간적으로 앞서는 판본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본 상의 차이는 『수심결』의 내용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수심결』의 경우도 개원사본 및 明藏本 계통의 판본 사이에 많은 글자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진심직설』과 마찬가지로 이를 조선초기의 판본들과 대조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자세한 비교는 뒤의 <부표 2> 참조) A는 중국의 판본인 개원사본과 명장본의 글자가 조선초기의 판본과 다른 경우인데, 특히 조선초기 판본의 ‘靈’자를 개원사본과 명장본이 모두 ‘虛’자로 바꾸고 있는 것에서 중국에서 유통된 판본들이 조선초기의 판본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B와 C는 개원사본과 명장본의 글자가 다른 경우인데, 대체적으로 명장본 계통이 개원사본에 비해 조선초기 판본들과 더 많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개원사본이 조선초기 판본과 일치하는 B의 경우 명장본에 사용된 글자들이 내용상 대부분 명백한 誤字인 것과 달리 명장본이 조선초기 판본과 일치하는 C의 경우 개원사본에 사용된 글자들은 ‘使與人天爲師’를 제외하고는 내용상 오류로 볼 수 없고 오히려 ‘臨濟’의 경우는 개원사본이 정확한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수심결』에서도 개원사본이 명장본들에 비해 더 정확한 판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진심직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원사본이 명장본에 비해 시기적으로 앞서는 판본을 저본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¹⁶⁾

- 14) 제목이 다른 제15절의 경우도 본문의 내용상 두가지 제목이 모두 가능하지만 글이 ‘眞心を 契證한 사람이 사후에 어디에 依託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개원사본의 제목인 ‘眞心所住(진심이 머무르는 곳)’가 다른 본의 제목인 ‘眞心所往(진심이 가는 곳)’보다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 15) 중국 판본들에서 ‘靈’자를 ‘虛’자로 일괄적으로 바꾼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조선초기의 판본 중 일부에서는 ‘靈’자를 중간부분을 생략하여 간략하게 쓰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형태의 글자가 중국에서 전해지는 과정에서 비슷한 형태의 ‘虛’자로 잘못 판독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 16) 개원사본을 다른 판본들과 비교하면 첫 번째 단락의 ‘若欲求佛’과 두 번째 문답부분의 ‘與人有殊何故今時修心之輩 無有一人發現神通變化’, 마지막 문답부분의 ‘可見’ 등이 누락되어 있고 중간에 ‘諦聽諦聽’도 ‘諦聽’만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본에 가까운 판본일수록 글자의 결락이 적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개원사본이 明藏本에 비해 원본에서 더 멀리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락은 저본에서부터 있었던 것이라기 보다는 개원사본의 판각과정에서 빚어진 판각상의 실수로 생각된다. 해당 부분은 각기 ‘莫若求佛 若欲求佛’ ‘應現神通變化 與人有殊何故今時修心之輩 無有一人發現神通變化’ ‘其狀可

〈수심결 각 판본의 차이점〉

A	개원사본 =명장본	虛知, 虛通, 今見作用, 是如事上, 爲兩門, 益人天, 隨黑暗, 能生信心
	조선초기본	靈知, 靈通, 今現作用, 是知事上, 就此兩門, 蓋人天, 墮黑暗, 生信心
B	개원사본 =조선초기본	他人有解悟處, 指示入路, 雖悟本性, 加功着力, 至于今日, 人生萬物之靈, 吾末如之何也
	明藏本	他既有解悟處, 指爾入路, 頓悟本性, 仲(中)功著力, 至於今日, 生人萬物之虛, 吾末如之何也
C	개원사본	今世之人, 知覺, 臨濟, 不名修心, 迷癡之輩, 眞謂, 使與人天爲師, 鴉鵲鳴啖, 還見, 諦聽, 便廢, 展轉, 兩輪, 若石壓草, 吃飯, 稱無事底人, 寂然正受, 反招無間, 更向何生, 逢醫王, 其狀 野狂, 獅子
	明藏本 =조선초기본	今之人, 覺知, 臨際, 不名修學, 迷癡輩, 眞所謂, 便與人天爲師, 鴉鵲鳴啖, 還有, 諦聽諦聽, 便撥, 轉展, 二輪, 如石壓草, 喫飯, 爲無事人, 寂然三受, 返招無間, 更待何生, 遇醫王, 其狀可見, 野干, 師子

위와 같은 글자의 차이보다 더 분명하게 개원사본 『수심결』이 명장본보다 오래된 판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焰’자의 사용례를 들 수 있다. <부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원사본에는 ‘焰’자가 모두 3회 사용되는데 반해 명장본에는 2회만 사용되고 있고, 다른 1자는 ‘照’자로 바뀌어 있다. ‘焰’는 고려에서 ‘照’에 대신하여 사용된 글자로 이는 4대왕인 광종의 이름인 昭를 피휘하기 위해 사용된 글자였다.¹⁷⁾ 물론 ‘照’와 ‘焰’는 서로 다른 글자이므로 굳이 피휘할 필요가 없지만 ‘照’에 포함되어 있는 ‘昭’를 피휘하기 위하여 같은 의미를 갖는 ‘焰’로 사용하였던 것이다.¹⁸⁾ 그래서 고려시대의 금석문에는 ‘照’를 사용할 곳에 ‘焰’를 사용한 곳이 많은데¹⁹⁾ 승려들의 법호로 사용된 ‘照’자도 대부분의 금석문에는 ‘焰’로 나타나고 있다.²⁰⁾ 지눌의

見 其功可驗 등과 같이 비슷한 글자가 겹치는 부분이어서 쉽게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부분은 중복하여 강조하는 부분이어서 결락되어도 내용의 이해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도 결락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 고려시대 피휘 사례에 대해서는 정구복, 1994 <고려조의 피휘법에 관한 연구>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焰’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고려시대 자료에서 ‘焰’자의 사용은 광종대에 건립된 <高達寺元宗大師惠眞塔碑>에 처음 보인다.
- 3대왕 定宗의 이름을 피휘하는 경우에도 이름인 ‘堯’뿐 아니라 ‘曉’와 같이 ‘堯’를 포함하고 있는 글자의 경우 ‘堯’ 부분을 결획 등의 방법으로 피휘하였다.(정구복, 위 논문 662쪽) 다만 국왕의 이름인 ‘堯’나 ‘昭’에 대한 피휘가 철저하게 지켜진 것과 달리 曉나 照 등과 같은 글자에 대한 피휘는 반드시 실행하였다고 보아 선택적으로 실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睿宗代의 國師였던 慧照의 경우 자료에 따라 慧焰(命投慧焰國師 祝髮學禪那法智勒寺廣智大禪師墓誌, 就光明寺 依慧焰國師服勤承事, 斷俗寺大鑑國師塔碑) 혹은 慧照(投慧照國師門弟, 龍門寺重修碑)로 나온다.
- 『朝鮮金石總覽』에서 광종대부터 元간섭기 이전까지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焰’자의 사용은 24회, ‘照’자의 사용은 10회로 나타나고 있다. 고려조와 元간섭기 이후의 금석문에서는 ‘焰’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 圓光遍焰弘法大禪師 (淨土寺弘法國師眞相塔碑)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普照라는 범호와 달리 당시의 자료에는 普炤로 나타나고 있다.²¹⁾ 그런데 이 ‘炤’자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고려 국왕의 이름에 대한 피휘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대부분 본래의 글자인 ‘照’로 바뀌어 조선시대 이후의 자료에서는 ‘炤’자를 거의 발견하기 힘들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초기에 간행된 『수심결』의 판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부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5세기의 네 가지 판본 중 시기가 가장 앞서는 운주사본(1432년)에만 ‘炤’가 2회 사용되었을뿐 다른 판본에는 ‘炤’가 모두 ‘照’로 바뀌어 있다.²²⁾ 이처럼 ‘炤’가 사용된 판본이 ‘照’로 바뀐 판본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것이므로 ‘炤’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개원사본의 저본이 明藏本의 저본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문제점에 대한 분석

이처럼 개원사본의 『진심직설』과 『수심결』이 모두 明版 대장경 계통의 판본들에 비해 원본에 가까운 내용과 글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개원사본의 저본이 명판 대장경의 저본보다 원본에 더 가까운 형태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명판 대장경의 『진심직설』에는 1469년의 重刊序가 있고, 『수심결』에는 1447년의 重刊跋이 있어 명장본이 이때에 중간된 『진심직설』과 『수심결』을 저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개원사본의 저본은 그보다는 앞선 시기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개원사본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중간서와 중간발이 없는데, 위에서 검토한 판본상의 차이와 관련하여 이해할 때 이는 개원사본이 그러한 중간서와 중간발이 없는 판본 즉 1447년 이전에 간행된 판본을 저본으로 한 때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개원사본의 저본은 최소한 1447년 보다는 이전의 판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진심직설』과 『수심결』 모두 개원사본이 明藏本보다 앞선 시기의 책을 저본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책의 체제도 개원사본이 명장본보다 원형에 가까운 가능성이 높으므로 굳이 명장본의 체제를 원래 체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제

累加光天遍炤至覺智滿圓默禪師 (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碑)

贈諡慧炤國師 (七長寺慧炤國師塔碑)

稱曰融炤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

通炤僧統智稱 (靈通寺住持智稱墓誌)

額曰圓炤之塔 (松廣寺眞覺國師圓炤塔碑)

21) 曹溪山修禪社佛日普炤國師碑銘 (『東文選』卷117), 時普炤國師 於曹溪山 (松廣寺眞覺國師圓炤塔碑). 단 고려 무인집권기의 자료로 보이는 <修禪社形止案>에 수록된 지눌의 비문에는 普照國師로 기록되어 있다.

22) 명장본과 운주사본은 ‘炤’자가 사용되는 위치가 일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뿐만 아니라 뒤의 <부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명장본은 운주사본을 비롯한 조선초기의 판본과 글자가 일치하는 곳이 많은데, 이는 명장본의 저본이 조선초기의 판본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달리 개원사본은 상대적으로 조선초기의 판본과 글자의 출입이 많은데 이는 개원사본의 저본이 조선초기의 판본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판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진심직설』을 지눌의 저술로 생각하게 한 편집상태 상의 두가지 특징 즉 『진심직설』이 『수심결』의 뒤에 붙어있고 『계초심학인문』을 부록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먼저 『수심결』과 『진심직설』의 순서의 경우 개원사본에는 오히려 『진심직설』이 『수심결』보다 앞에 오고 있으므로 두 책이 원래부터 명장본처럼 『수심결』-『진심직설』의 순서로 편집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판본에 따라 책의 선후관계가 다르다는 것은 두 책의 선후관계가 일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두 책이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두 책의 순서가 이처럼 임의적인 것이라면 『수심결』의 뒤에 붙어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심직설』을 같은 사람의 저술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뒤에 오는 책의 저자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의 저자가 앞의 책의 저자와 같다고 인정될 수 있지만, 앞에 오는 책의 저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뒤에 오는 책의 저자와 같다고 인정하기 보다 두 책의 저자를 별개의 인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두 책이 별개의 책이었고 같은 저자에 의한 책이 아니었음은 명장본에 붙어 있는 1447년의 중간본의 발문 내용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만력부장본으로 추정되는 상백문고본의 『진심직설』과 『수심결』에는 1447년 12월 같은 날짜에 씌여진 발문이 각기 붙어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이 두책은 金陵의 大天界寺에서 같은 승려에 의하여 함께 중간된 것으로 파악된다.²³⁾ 그런데 두 책의 중간을 주관하고 동시에 발문을 쓴 그 승려는 두 책의 발문에서 양자의 상관관계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수심결』의 발문에서는 저자를 고려의 보조선사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진심직설』의 발문에서는 저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만일 이 두 책이 밀접하게 관련되었고 같은 저자에 의해 저술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발문에 그러한 사실을 명기했을 것이므로 두 책의 발문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그가 두 책을 별개의 저자가 쓴 별개의 저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진심직설』에 『계초심학인문』과 몽산 덕이와 관련된 범어들이 부록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보다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생각되는 개원사본에 의거하여 『진심

23) 牧牛子修心訣者 西高麗普照禪師之所述也 予一日詣山居 遇性空禪師 囊蓄此集 出示於予 予遂捧讀再三 見其言簡理備 顯示分明 寔爲修心頓悟之奧旨也 適金陵信士牛普理 因母呂妙清患心氣之疾未瘳 予勸令發心施財刊印流行 冀聞隨喜者了即心自性之妙 成就慧身不由他悟 以此殊勳 祈佑呂氏身躬康樂 壽算延長 由心悟而見真元 使病瘳而得如意者矣 正統十二年 龍集丁卯 臘月佛成道日 大天界蒙堂比丘雲菴 廣載跋
夫心者 是世間出世間萬法之總相也 萬法即是心之別相 然 其別有五 一肉團心 狀如蕉蕾 生色身中 係無情攝 二緣慮心 狀若野燒 忽生忽滅 係妄想攝 三 集起心 狀如草子 埋伏識田 係習氣攝 四 賴耶心狀如良田 納種無厭 係無明攝 五 真如心 狀同虛空 廓徹法界 係寂照攝 已上五心 前四皆妄 念念生滅後日是真 三際一如 若不揀辯分明 猶恐認妄爲真 其失非小 故 引佛經祖語 問辯迷釋 開示迷妄根源 指陳修證本末 書 僅十餘載 朝夕觀覽 以爲樓神之秘要 一日出示衆 信善士感 節菴居士陳普忠 慨然樂施 綉梓流傳 庶心之士觀之者 感悟真心之妙 迴出直說之表也 是爲跋 正統十二年 歲在丁卯臘月八日 大天界蒙堂比丘

직설』에는 원래 『계초심학인문』 등이 부록되지 않았는데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 아니면 개원사본이 원래 부록되어 있던 『계초심학인문』 등을 삭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어느 쪽이 옳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선초기의 일부 『수심결』 판본들에 문제가 되는 『계초심학인문』 등이 부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한 실마리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가장 주목되는 책은 1467년에 萬魚寺에서 간행한 『수심결』로 이 책에는 문제가 되는 지눌의 『계초심학인문』과 몽산 관련 법어 3편(院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蒙山和尚示衆)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수심결』에만 간기가 기록되어 있고 『계초심학인문』과 몽산 관련 법어 3편에는 별도의 간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板의 크기와 版心の 형태가 같아 함께 판각된 것으로 보이는데,²⁴⁾ 체제상 『수심결』의 부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²⁵⁾ 『수심결』에 『계초심학인문』과 몽산 관련 법어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이 판본이 유일하지만 『수심결』에 『계초심학인문』 또는 몽산 관련 법어 중 하나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 판본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1400년 지리산 덕기암에서는 『수심결』과 함께 『계초심학인문』을 간행하였고, 1441년의 윤필암본 『수심결』과 1467년에 간행된 언해본 『수심결』에는 몽산 관련 법어 3편을 포함하는 『법어』가 합본되고 있는 것이다.²⁶⁾

이와 같이 조선초기 판본에서는 『계초심학인문』과 몽산 관련 법어가 『수심결』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두 책이 『진심직설』에 부록되어 있는 명장본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왜 조선초기의 판본에서는 『수심결』에 부록되어 있는 두 책이 명장본에서는 『진심직설』에 부록되는 것일까. 두 책이 처음부터 『수심결』과 『진심직설』 양쪽에 부록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한다. 원래 둘 중의 어느 한쪽에 부록되어 있었는데 후에 편집을 달리 하면서 다른 책의 부록으로 옮겨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수심결』의 부록으로 있는 것이 원형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심결』의 경우 조선초기의 판본과 명장본에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조선초기 판본에 부록으로 붙어

24) 글씨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어서 『수심결』은 1행 17장인데 비해 『계초심학인문』과 몽산 관련 법어들은 1행 18자이다. (행수는 두 책이 모두 半葉 9行으로 같음)

25) 이 책의 뒷부분에는 1468년 2월에 重刻했다는 간기를 가지고 있는 『蒙山和尚法語略錄』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蒙山和尚法語六段』이라고 내용을 밝히고 있고, 판심의 형태도 달라 앞의 책들과는 별도로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연대상의 근접성으로 미루어 앞의 3책을 간행한 이후에 같은 사찰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26) 그런데 15세기말부터는 『수심결』에 『계초심학인문』이나 몽산 관련 법어 대신에 宋初의 승려 延壽의 『禪宗唯心訣』이 합편되고 있다. 『선종유심결』이 『수심결』과 유사한 제목을 가지고 있고 사상적으로 비슷한 내용과 심도를 가지고 있어 합본된 반면 『계초심학인문』이나 몽산 관련 법어들은 『수심결』에 비해 분량이 간략하고 내용도 단순하여 분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계초심학인문』과 몽산 관련 법어들의 상호연결관계는 보다 오래 지속되어, 17세기까지도 『계초심학인문』 혹은 『계초심학인문』 『發心修行章』 『自警』 등의 합본에 몽산 관련 법어가 포함된 법어집이 함께 수록된 판본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있는 『계초심학인문』과 몽산 관련 법어 등이 명장본에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일 『진심직설』의 부록으로 붙어 있던 『계초심학인문』 등이 조선초기의 『수심결』 판본에 옮겨진 것이라면 『계초심학인문』 등을 부록으로 가지고 있던 『진심직설』이 조선초기에 유통되지 않은 이유는 쉽게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계초심학인문』 등이 원래는 『수심결』에 부록되어 있던 것이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심직설』로 옮겨지게 되었을까. 현재의 자료로서는 이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明版 대장경의 『수심결』과 『진심직설』의 저본이 1447년에 같은 승려에 의해서 함께 중간되었다는 사실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의 중간본을 저본으로 한 명장본 『수심결』이 조선초기 판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중간의 저본으로 사용한 『수심결』의 판본에는 조선초기의 판본들과 마찬가지로 『계초심학인문』과 몽산 관련 법어들이 합본된 책일 가능성이 높는데, 만일 그가 중간 과정에서 『계초심학인문』 등을 『수심결』이 아닌 『진심직설』의 부록으로 수록하였다면 명장본과 같은 체제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가 『수심결』에 합본되어 있던 『계초심학인문』과 몽산 관련 법어들을 『진심직설』의 부록으로 옮겨 놓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하는 것인데 두 책 간행시의 시주자의 시주액 차이에서 비롯한 경비상의 문제, 혹은 『계초심학인문』과 몽산 관련 법어들의 짧은 문장 형식과²⁷⁾ 『진심직설』의 짧은 문장 형식의 유사성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볼 뿐이다. 하지만 그의 중간 이전에 이미 『계초심학인문』 등이 『진심직설』에 부록되는 체제상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으므로 이 문제는 쉽게 단정하기 힘들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서 『진심직설』의 원래의 모습은 명장본 계통의 판본들처럼 『수심결』의 뒤에 합본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눌의 『계초심학인문』과 몽산 관련 법어들을 부록으로 수록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상의 특징이 그동안 이 책을 지눌의 저작으로 간주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검토 결과는 이 책이 지눌의 저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진심직설』이 지눌의 저술인지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제상의 문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상내용의 측면에서 이 책이 지눌의 저작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 장에서는 사상적 측면에서 『진심직설』의 내용이 지눌의 사상과 일치하는지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7) 『誠初心學人文』 자체가 긴 분량의 글도 아니지만 특히 조선초기의 판본에는 이 글이 3내지 4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明藏本도 3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다.

Ⅲ. 知訥 사상체계와의 차이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眞心直說』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 지눌의 저서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사상적 기반이 지눌의 다른 저술들과 다를 뿐 아니라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같은 사람의 저술이라고 해도 저술에 따라 사상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지눌의 다른 저술들이 사상적으로 서로 조응하는 것과 달리 유독 이 『진심직설』만이 사상적으로 이질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책을 그의 저술이라고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앞 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서지적 측면에서 『진심직설』이 지눌의 저술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용상으로도 이 책이 지눌의 다른 저술과 상통하지 않는다면 지눌의 저술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는 『진심직설』의 사상과 지눌의 사상체계인 3門과의 관계, 지눌의 다른 저술에 보이는 마음에 대한 이해와 『진심직설』의 마음에 대한 이해의 비교 등을 통해 『진심직설』이 과연 지눌의 저술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眞心直說』과 3門의 관계

널리 알려진 것처럼 지눌의 사상체계는 惺寂等持門, 圓頓信解門, (看話)徑截門의 3門체계로 알려져 있다. 그의 碑文에 지눌이 3문을 가지고 후학들을 교육시켰음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을뿐 아니라²⁸⁾ 후대의 연구에서도 그의 사상이 이 3門으로 정리될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진심직설』이 지눌의 저술이라면 이 책의 내용도 3문 중의 일부 혹은 전체와 연결되는 모습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진심직설』과 지눌의 3문과는 연결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

먼저 3門과 『진심직설』의 사상적 기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성적등지문, 원돈신해문, 경절문 등의 3문은 지눌에 의한 창안이지만 이 각 문의 구체적 내용은 특정한 사상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惺寂等持門은 慧能의 『法寶壇經』의 定慧雙修 사상에 기초하고 있고, 圓頓信解門과 (看話)徑截門은 각기 李通玄의 『華嚴論』에 서술된 중생의 本來成佛(=不動智佛) 사상과 宗杲의 『大慧語錄』에 표명된 看話禪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눌의 3문의 사상적 기반은 이 3종의 책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눌의 비문에는 그가 이 3종의 책에 근거하여 가르침을 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²⁹⁾ 그의 사상적 성장과정도 이 3종의 책과 만나는

28) 『普照全書』 420쪽

“開門有三種 曰惺寂等持門 曰圓頓信解門 曰徑截門 依而修行 信入者多焉”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⁰⁾ 자연히 그의 저술들에도 이 3종의 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술에 따라 이 3종 책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인용되고 있다.(아래 표 참조) 그리고 각 저술은 어떠한 책을 주로 인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전체의 주제 즉 3門 중에서 어느 문에 해당하는지 결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심직설』에는 혜능과 이통현, 대혜 종고 중 누구로부터의 영향도 보이지 않는다. 『법보단경』, 『화엄론』, 『대혜어록』 등이 전혀 인용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이 책들의 주제인 정혜쌍수나 부동지불, 화두참구와 같은 내용은 얘기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진심직설』은 주제가 선사상의 핵심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상당한 분량에 꽤 많은 책들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 책이 지눌의 3문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러한 인용상태는 납득하기 힘들다.³¹⁾ 위와 같은 인용의 모습은 『진심직설』의 주제가 지눌의 3문의 사상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지눌 저술 속의 인용저작〉

지눌저술 인용문	정혜결사문	수심결	원돈성불론	간화결의론	법집별행록절 요병입사기	진심직설
법보단경	○	○	X	X	○	X
화엄론	○	X	○	○	○	X
대혜어록	X	○	○	○	○	X

실제로 『진심직설』 본문의 내용은 지눌의 3門의 사상 어느 것과도 일치되지 않는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책에는 정혜쌍수나 중생의 본래성불(=부동지불), 화두의 참구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문 중의 어느 것과도 연결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지눌의 3문의 사상 특히 성적등지문 혹은 원돈신해문의 내용과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지눌의 사상과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지눌이 얘기하는 성적등지문이나 원돈신해문의 내용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진심직설』의 내용 중에는 먼저 지눌 선사상의 중요한 내용인 頓悟漸修와 통하는 부분이

29) 『普照全書』 420쪽

“立法演義 則意必六祖壇經 伸以華嚴李論 大慧語錄 常羽翼”

30) 『普照全書』 419-420쪽

“大定二十二年壬寅 … … 於學寮 閱六祖壇經 … 得未曾有 … … 大定二十五年乙巳 … 因讀大藏 得李長者 華嚴論 重發信心 … … 至居智異 得大慧普覺禪師語錄 … 於此契會”

31) 『誠初心學人文』과 『念佛要門』에도 『법보단경』, 『화엄론』, 『대혜어록』 등이 인용되지 않고 있지만 이 책들은 모두 짧은 분량에 별다른 인용없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만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사상적으로도 이 책들은 지눌의 기본적 사상체계와는 구별되는 보조적인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다.

있다. 眞心을 깨달은 이후에 습기를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다음의 내용이 지눌이 얘기하는 돈오점수의 사상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다.

道를 닦는 사람이 眞心을 드러나게 하였다 해도 習氣가 없어지지 않으면 익숙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을 잃는 때가 있다. (중략) 만일 道인이 眞心을 얻은 후에는 먼저 힘써 이를 지켜야하며 큰 힘이 생긴 이후에야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진심의 정도를 점검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평소의 미워하고 좋아하는 상황이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때때로 상상하여 전과 같이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道心이 익숙하지 않는 것이고, 만일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道心이 성숙해진 것이다. 만일 (道心이) 성숙해져서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마음을 점검하되 미워하고 좋아하는 상황을 당했을 때 일부러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라. 만일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마음이 無碍하게 된 것으로 마치 평지에 소를 풀어 놓아도 곡식을 짓밟지 않는 것과 같다.³²⁾

지눌은 자신의 마음이 부처와 같다는 것을 깨달은(=頓悟) 이후에도 중생으로서의 습기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깨달음에 기초한 수행이 계속 필요하다고(=漸修) 주장하였다. 따라서 위 『진심직설』의 내용은 지눌의 돈오점수의 주장과 통하고 특히 뒷부분의 구체적 수행에 관한 설명은 漸修에 해당하는 성적등지문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³³⁾ 하지만 위의 내용을 지눌의 돈오점수 사상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지눌은 『권수정혜결사문』과 『수심결』,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등에서 돈오점수 중의 점수에 해당하는 惺寂等持門 즉 정혜쌍수를 隨相定慧와 自性定慧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수상정혜는 離垢定慧로서 산란해진 마음을 가라 앉히고 관조하는 수행을 하나씩 닦아가는 것으로서 점차적이고 순서가 있는 것이지만, 自性定慧는 稱性定慧로서 자신의 본래 마음이 無非·無痴·無亂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는 것으로 특별히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관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눌은 특히 이 수상정혜와 자성정혜를 비교하여 전자는 漸宗(= 漸門, 權乘)의 불완전한 가르침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존재에 대한 집착[法愛]과 주관과 객관의 구분[人我之相]을 극복하지 못한 수행법이지만 후자는 頓宗(= 頓門)의 완전한 가르침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能所의 구분이 없고 주관과 객관의 차별이 없는

32) 『眞心直說』 <眞心驗功> (『普照全書』 64쪽)

“學道之人，已得眞心現前時，但習氣未除，若遇熟境，有時失念，如牧牛，雖調到牽拽隨順處，猶不敢放了鞭繩，直待心調步穩，趕趁入苗稼中，不傷苗稼，方敢撒手也。到此地步，便不用牧童鞭繩，自然無傷苗稼。如道人得眞心後，先且用功保養，有大力用，方可利生。若驗此眞心時，先將平生所愛底境，時時想在面前，如依前起憎愛心，則道心未熟，若不生憎愛心，是道心熟也。雖然如此成熟，猶是自然不起憎愛，又再驗心，若遇憎愛境時，特然起憎愛心，令取憎愛境界，若心不起，是心無礙，如露地白牛，不傷苗稼也。”

33) 종래 『진심직설』을 성적등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한 일부의 견해도 이러한 내용에 의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된 수행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혜쌍수의 핵심은 바로 자성정혜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自性定慧의 근거가 바로 혜능의 『壇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지눌의 점수에 대한 설명과 위의 『진심직설』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진심직설』에서 얘기하는 깨달음 이후의 수행은 수상정혜의 내용에는 해당하지만 자성정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지눌이 점수의 수행을 이야기할 때 수상정혜의 불완전함과 자성정혜의 완전함을 대조하여 강조하는 것을 고려하면 자성정혜를 이야기하지 않는 『진심직설』의 설명은 다른 책에 보이는 지눌의 설명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성적등지문의 사상적 기반이라고 하는 혜능의 『단경』의 핵심내용을 지눌은 바로 자성정혜에서 찾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성정혜의 언급이 없는 『진심직설』의 수행에 대한 설명은 그것이 일견 지눌의 돈오점수에 대한 설명과 비슷하다고 하여도 지눌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상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진심직설』에는 다음과 같이 衆生이 본래 부처이고 중생에게는 佛性이 本有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중생의 本來成佛을 이야기하는 圓頓信解門의 사상과 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祖門(=선종)의 바른 믿음은 교종의 믿음과 달라 일체의 有爲因果를 믿지 않고 다만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는다. 본래 참된 자기의 성품을 사람마다 갖추고 있고, 涅槃의 妙體를 각자가 다 완전하게 이루고 있다. (중략) 志公이 말하기를 相이 있는 몸이 相이 없는 몸이 있고 無明의 길에 無生의 길이 있다고 하였고, 永嘉대사는 無明의 實性이 곧 佛性이고 幻化의 空身이 곧 法身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衆生이 本來 부처인 것을 알 수 있다.³⁴⁾

하지만 단순히 중생이 부처라거나 중생에게 佛性이 있다는 이야기는 불교 사상 전반에서 얘기될 수 있으며 특히 '卽心卽佛'을 내세우는 선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만으로 지눌의 원돈신해문의 사상과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지눌이 얘기하는 원돈신해문의 내용은 중생의 無明分別과 諸佛의 果智가 根本普光明智에 근거하며 중생과 부처를 비롯한 모든 존재는 이 根本智의 幻現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³⁵⁾ 이는 本來成佛과 諸法圓融이라는 화엄의 기본 사상을 禪의으로 수용한 이통현의 『화엄론』에 입각하여 제시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단순히 중생이 곧 부처라는 불교의 진리를 얘기하는

34) 『眞心直說』 <眞心正信> (『普照全書』 49쪽)

祖門正信. 非同前也. 不信一切有爲因果. 只要信自己本來是佛. 天真自性. 人人具足. 涅槃妙體. 箇箇圓成. 不假他求. 從來自備. (중략) 志公云 有相身中無相身. 無明路上無生路永嘉云. 無明實性卽佛性. 幻化空身卽法身. 故知衆生. 本來是佛.

35) 『圓頓成佛論』 (『普照全書』 73쪽)

此則佛及衆生 本從根本普光明智 性海幻現故 生佛相用 似有差殊 全是根本普光明智之相用也

데 그치지 않고 중생과 부처의 동질성을 인식능력에 주목하여 중생의 불완전한 앎과 부처의 완전한 앎이 모두 根本智에 의거한 것임을 얘기하는데 특징이 있다. 중생이 자신이 부처와 같음을 깨닫는 것도 바로 마음의 본질에 신령한 인식능력 즉 靈知가 있음을 깨닫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심직설』의 내용에는 이와 같은 인식능력에 기초한 설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진심직설』에서 중생과 부처의 동질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은 다음의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생의 마음 속에도 가려지긴 했지만 부처와 같은 眞心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如來藏의인 설명은 衆生心이 곧바로 根本普光明智의 현현이라고 하는 원돈신해문의 사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진심은 성인과 범부가 같은데 범부는 망심으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깨끗한 성질을 잃고 가로 막히게 된다. 그래서 眞心이 곧바로 드러나지 못하고 단지 어둠 속 나무 그림자처럼, 땅 속의 흐르는 물처럼 있음에도 알려지지 않는다. (중략) 이것은 眞心이 덮여있는 것이다. 또 慈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法身在 본래 존재하는 것은 부처와 같은데 범부는 妄心에 가리워서 있음을 알지 못하고 번뇌에 싸여있다. 그래서 如來藏이라고 이름한다.”³⁶⁾

원돈신해문의 기초가 되는 화엄사상 자체가 이미 가능태로서의 여래장사상을 한 차원 높은 실현태로서의 本來成佛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로 지눌의 다른 저서나 이통현의 『화엄론』 등에는 이와 같은 여래장적인 설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진심직설』은 근거하고 있는 사상이나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지눌의 3門사상과는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³⁷⁾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눌의 사상체계가 3門으로 다 포괄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진심직설』의 사상을 지눌의 사상체계에 포섭할 수 없는 것일까. 『진심직설』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을 지눌의 다른 저서와 비교해보면서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6) 『眞心直說』 <眞心在迷> (『普照全書』 54쪽)

“曰眞心聖凡同一。凡夫妄心認物。失自淨性。爲此所隔。所以眞心不得現前。但如暗中。樹影。地下流泉。有而不識耳。故經云。善男子。譬如清淨摩尼寶珠。映於五色。隨方各現。諸愚痴者。見彼矣尼。實有五色。善男子。圓覺淨性。現於身心。隨類各應。彼愚痴者。說淨圓覺寔有如是身心自性。亦復如是。肇論云。乾坤之內宇宙之間。中有一寶。秘在形山。此乃眞心在纏也。又慈恩云。法身本有。諸佛共同。凡夫由妄覆。有而不覺。煩惱纏裹。得如來藏名”

37) 『眞心直說』의 내용이 지눌의 3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종익은 『眞心直說』을 3門 이후에 제시된 無心合道門의 구체적 수행방법론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이종익, 1989 「보조저술의 서지학적 해제」 『보조사상』 3, 151쪽) 그러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심합도문은 화두의 참구를 통한 수행법으로 관화경절문과 같은 것으로 3문과 구분되는 별개의 수행법이라고 보기 힘들다.(최연식, 1999 앞의 논문 126쪽) 지눌의 비문에도 무심합도문을 별개의 수행문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

2. 마음에 대한 이해의 비교

『진심직설』의 본문 내용 중에는 지눌의 다른 저서의 설명과 차이가 나는 곳이 적지 않은데, 특히 이 책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본질과 이를 깨닫는 방법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그 점이 두드러진다. 먼저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이를 가리키는 용어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진심직설』에서는 眞心을 모든 만물을 형성하는 근원으로 보면서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妄心을 버려야한다고 하고 妄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³⁸⁾ 지눌의 다른 저서들에서는 중생의 無明分別이 諸佛의 果智와 마차가지로 根本普光明智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眞心과 妄心을 구별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보고, 듣고, 느끼는 인식이 곧바로 佛性的 작용이라하면서 그러한 인식의 본질인 靈知를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³⁹⁾ 여기에서 지눌이 마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靈知라는 용어는 인식능력을 통해서 마음의 본성을 추구하는 그의 心性論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런데 『진심직설』에서는 이와 반대로 마음의 본질을 知의 부정 즉 無知로 나타내고 있다.⁴⁰⁾ 물론 이때의 無知는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無知가 아니고 범부의 분별심으로서의 앎을 초월한 참된 앎으로서의 無知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지눌이 얘기하는 靈知와 통하는 것이지만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만은 지눌의 다른 저서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眞心이라는 용어의 사용 모습은 『진심직설』과 지눌의 다른 저서와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심직설』이 제목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眞心이라는 용어로 마음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달리 지눌의 다른 저서들에서는 眞心이라는 용어 대신 自性, 佛性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마음의 본질적 작용을 설명할 때에는 (空寂)靈知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눌의 다른 저술에는 眞心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용어를 9회 사용하고 있는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의 경우 그 중 8번이 宗密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

38) 『眞心直說』(『普照全書』 55-58쪽)

39)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普照全書』 121쪽)

“不可離妄求真 亦不可認妄爲眞 若了妄念從性而起 起即無起 當處便寂 豈有眞妄二見乎”

『修心訣』(『普照全書』 32쪽)

“能見聞覺知者 必是汝佛性 故臨際云 四大不解 說法聽法 虛空不解說法聽法 只汝目前 歷歷孤明 勿形段者 始解說法聽法所謂勿形段者 是諸佛之法印 亦是汝本來心也”

『修心訣』(『普照全書』 34쪽)

“凡夫迷時 四大爲身 妄想爲心 不知自性是眞法身 不知自己靈知是眞佛 心外覓佛 波波浪走 忽被善知識 指示入路 一念迴光 見自本性 而此性地 元無煩惱 無漏智性 本自具足 卽與諸佛 分毫不殊”

40) 『眞心直說』 <眞心無知> (『普照全書』 65쪽)

“眞心與妄心對境時 如何辨別眞妄耶 曰妄心對境 有知而知 於順違境 起貪嗔心 又於中容境 起痴心也 既於境上 起貪嗔痴三毒 足見是妄心也 祖師云 逆順相爭 是爲心病故 對知於不可可者 是妄心也 若眞心者 無知而知 平懷圓照故 異於草木 不生憎愛故 異於妄心 卽對境虛明 不憎不愛 無知而知者 眞心故”

나머지 1회도 종밀의 이야기에 대한 설명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 밖의 저술에는 『수심결』에서 이 眞心이라는 단어를 1회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수심결』에서도 이 眞心이라는 말을 色身에 대한 상대어로서 사용하고 있어⁴¹⁾ 이 단어를 주로 妄心에 대한 상대어로 사용하고 있는 『진심직설』과는 차이가 있다.

마음의 體와 用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진심직설』과 지눌의 다른 저서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진심직설』에서는 마음 곧 眞心을 (妙)體와 (妙)用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體는 不動한 것으로 모든 상대적 개념을 떠나있고 형상이 없는 것인데 반하여 用은 隨緣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형상을 가진다고 하였다.⁴²⁾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물과 파도의 관계 혹은 물에서의 濕性和 파동의 관계로 설명되는데 구체적으로 眞心の (妙)用은 움직이고 밥먹고 옷입는 사람들의 모든 일상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 妙用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심의 妙體를 체득한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마음의 본체와 작용을 구분하는 설명은 다른 지눌의 저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유일하게 『수심결』에 마음의 體와 用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수심결』에서는 마음 즉 自性の 體와 用이 각기 空寂과 靈知에 대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靈知는 구체적 행위가 아닌 인식기능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진심직설』에서의 用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진심직설』과 『수심결』의 마음의 體와 用에 대한 설명방식의 차이는 구체적인 행위까지를 포괄하는가 않는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用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 인용된 『法集』에는 洪州宗과 荷澤宗의 眞心에 대한 體用觀의 차이가 설명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홍주종은 마음의 用으로 구체적 행위인 隨緣用만을 제시하는데 반하여 하택종은 수연용과 함께 마음의 본질인 眞의 기능인 自性用을 마음의 用으로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⁴³⁾ 이러한 설명 방식에 견주어 보면 『진심직설』에서의 用은 隨緣用을 가리키고 『수심결』에서의 用은 自性用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눌은 하택종과 홍주종 어느 일방을 계승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靈知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에 대한 體用觀에 있어서는 하택종의 설명 특히 自性用에 공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심직설』에서처럼 自性用에 대한 언급이

41) 『修心訣』(『普照全書』 31쪽)

“色身是假 有生有滅 眞心如空 不斷不變”

42) 『眞心直說』〈眞心體用一異〉(『普照全書』 53쪽)

“妙體不動 絕諸對待 離一切相 非達性契識者 莫測其理也 妙用隨緣 應諸萬類 妄立虛相 似有形狀”

43)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普照全書』 115쪽)

“眞心本體 有二種用 一者 自性本用 二者 隨緣應用 猶如銅鏡 銅之質是自性體 銅之明是自性用 明所現影 是隨緣用 影即對緣現 現有千差 明即常明 明唯一味 以喻心常寂 是自性體 心常知是自性用 此知能語言能分別等 是隨緣用 今洪州指示能語言等 但隨緣用 闕自性用也 又顯教有比量顯 現量顯 洪州云心不可指示 以能語言等驗之 知有佛性 是比量顯也 荷澤直云心體能知 知即是心 此約知以顯心 是現量顯也”

없는 것은 지눌의 다른 저서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진심직설』은 내용상 지눌의 기본 사상체계인 3門체계에 포섭되지 않을뿐 아니라 기본 주제인 마음에 관한 설명 방식과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지눌의 다른 저서들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진심직설』이 지눌에 의해 저술된 책이라면 이러한 현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상 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심직설』을 지눌의 저술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까 의심되는 것이다. 만일 『진심직설』이 지눌에 의해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상적 차이는 저술 시기의 차이로 설명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진심직설』이 지눌의 이른 시기의 저술 즉 『단경』을 비롯하여 『화엄론』, 『대혜어록』 등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저술이라면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상적 차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눌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비문에 의하면 지눌이 『법보단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25세되던 때이고 이후 28세에 때에는 『화엄론』에 감명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가 『법보단경』과 『화엄론』의 강한 영향을 받으며 『권수정혜결사문』을 저술한 때의 나이는 33세였다. 따라서 『진심직설』이 지눌의 저서라고 한다면 이 책은 그의 20대 때에, 늦어도 33세 이전에는 저술되었어야만 한다. 깨달음은 나이나 수행기간과 관계없는 것이므로 지눌이 젊은 시절에 이 책을 저술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사상적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진심직설』의 내용과 표현으로 볼 때 2-30대의 인물이 저술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또한 『진심직설』이 지눌의 젊은 시절의 저술이라면 그 이후의 저술에서 이 책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사상의 흔적 혹은 사상의 변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지지 않는다. 이 책이 지눌의 저술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눌의 사상과 큰 차이가 나는 이 책을 굳이 지눌의 저술로 볼 필요는 없지않은가 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서지적 측면과 사상적 측면에서 『진심직설』이 지눌의 저술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 동안 『진심직설』을 지눌의 저술로 간주한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판본들에서 『진심직설』이 지눌의 저술인 『수심결』에 붙어 있고, 그 자체에 역시 지눌의 저술인 『계초심학인문』을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다는 체계가 큰 근거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판본들보다 원형의 모습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새로운 판본과의 비교를 통해 기존 판본

들의 체제와 편집상태는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후대에 발생한 임의적 편집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진심직설』의 사상내용도 지눌의 다른 저술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다른 저술들의 사상이 지눌의 사상체계로 얘기되는 3門체계로 정리되는 것과 달리 『진심직설』의 사상은 3門의 사상과는 적지 않은 괴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마음의 본질과 體用觀 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다른 저술들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의 결과를 기초로 『진심직설』이 지눌의 저술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며 지눌의 사상에 대한 검토에서 『진심직설』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지눌의 사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진심직설』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저술된 것일까. 지눌의 저술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어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한국의 승려일 가능성도 있지만 18세기 이전에 국내에서는 『진심직설』이 유통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한국의 승려에 의한 저술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金代의 승려로 北京 근처에 있는 潭柘山 龍泉寺의 주지를 했던 政言禪師의 저술 중에 『진심직설』과 이름이 비슷한 『眞心眞說』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⁴⁴⁾ ‘眞說’과 ‘直說’에 글자의 차이는 있지만 古版本에서 ‘眞’과 ‘直’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같은 책을 가리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다른 저서에 禪師들의 公案에 대한 해설서인 頌古, 拈古와 禪說에 대한 注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선사들의 公案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진심직설』의 저술 태도와 통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 그의 부도의 건립연대가 1188년인⁴⁵⁾ 것으로 보아 그의 활동연대를 12세기 중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아직 간화선이 등장하기 이전이어서 간화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진심직설』의 사상경향과도 부합된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진심직설』에서는 저자를 ‘古德禪師’라고 막연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대 이후 金代 승려들의 계보가 단절되고 대부분 망각되어 버린 것을 고려하면 金代의 승려를 ‘고덕선사’로 지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다만 현재 정언선사의 저술로 남아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그의 사상 경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潭柘山岫雲寺志』에 기록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의 행적에 관한 자료도 알 수 없어 그를 『진심직설』의 저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가 밝혀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金代의 불교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고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44) 『潭柘山岫雲寺志』(中國佛寺志彙刊 1-44) 61-62쪽.

“政言禪師 師許州長社人 姓王 九歲詣資福禪院淨良祝髮 受具戒 後參香山慈照禪師 嘗入丈室請益 慈照曰 諸法如意即諸如來 師言下有省 即說偈 諸緣不壞 了性無滅 雲散長空 碧天皎月 照可之 後至中都參竹林廣慧通理禪師 旣而梁園大長公主 暨東京留守曹王 請師住潭柘龍泉寺 遂繼惠公法席焉三歲 製頌古拈古各百篇 注禪說 金剛歌 又著金臺錄 眞心眞說 修行十法門 皆行於世 後大定年間說偈而化”

이 자료에 대한 정보는 椎名宏雄, 1993 『宋元版禪籍の研究』 부록의 <宋金元版禪籍逸書目錄>에서 얻었다.

45) 위의 책, 46쪽

한편 지금까지 알려진 『진심직설』의 판본들은 모두 『수심결』과 함께 간행되고 있는데, 원래 저자와 사상적 배경이 다른 두 책이 이처럼 함께 간행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두 책 모두 마음[心]을 주제로 내걸고 그 본질을 체득하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다가 두 책 모두 원나라 이후 禪宗의 중심적 경향이 된 看話禪과 달리 화두의 참구가 아닌 마음의 본질을 모색하는 선수행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 책이 비슷한 성향의 책으로 주목되어 함께 유통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이 문제 역시 중국에서 두 책의 유통상황 특히 『수심결』이 명대 이후 중국 불교계에 미친 사상적 영향과 관련하여 앞으로 보다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부표 1〉 『眞心直說』 諸本の 同異 비교 (면-행은 『普照全書』에 의함)

판종 면-행	개원사본 (1598년)	규장각소장본 (1584년 이전)	이충익 장래본 (1679년)	송광사본 (1799년)
47- 4	華嚴經	華嚴	華嚴	華嚴
48-13	水晶珠	水晶珠	水清珠	水清珠
48-13	前導故	前導故	前道故	前道故
49- 2	爲樂果	爲樂果故有樂果	爲樂果	爲樂果
49- 7	身無明	身無明	身無明	無明身
49-10	未能得道有利益否	未能道有利益不	未能入道有利益不	未能入道有利益不
49-13	於一念頃	於一念須	於一念須	於一念須
50- 7	淨名經	淨明經	淨明經	淨明經
50-15	韻出無心	韻出今時	韻出今時	韻出今時
50-16	堅牢	堅牢牢	堅牢	堅牢
51- 2	摩尼珠	牟尼珠	牟尼珠	牟尼珠
51- 2	呼爲	名曰	名曰	名曰
51-10	大虛	大虛	大虛	大虛
52- 5	證此心也	蓋證此心也	蓋證此心也	蓋證此心也
52- 6	證顯	詮顯	詮顯	詮顯
53- 1	轉處寔能幽	轉處寔能幽	轉處實能幽	轉處實能幽
53- 3	吃飯	喫飯	喫飯	喫飯
53- 8	張弓	拈弓	拈弓	拈弓
53- 8	俱肱	俱肱	俱肱	俱肱
53- 9	獅子	師者	師者	師者
53- 9	這箇大用	這着大用	這着大用	這着大用
53- 9	若於日用	若於日用	若於日用	於日用
53-14	契識	契識	契證	契證
54- 2	體本無動	體無動	體無動	體無動
54- 6	聖凡同一	聖凡同一	聖凡本同	聖凡本同
54- 9	摩尼	牟尼	摩尼	摩尼
54-10	寔有如是	寔有如是	實有如是	實有如是
54-13	由妄覆之	由妄覆	由妄覆	由妄覆
55- 1	眞心息妄 十種工夫	眞心息妄	眞心息妄	眞心息妄
55- 3	幻滅滅故非幻不滅	故非幻不滅	故非幻不滅	故非幻不滅
55- 5	磨鏡垢淨明現	磨鏡垢盡明現	磨鏡垢盡明現	磨鏡垢盡明現
55- 5	永嘉云	永嘉亦云	永嘉亦云	永嘉亦云
55- 6	性卽眞	性卽眞心	性卽眞心	性卽眞心
55- 6	痕垢淨時	痕垢盡時	痕垢盡時	痕垢盡時
55- 8	俯四海	俯四海	撫四海	撫四海
55- 8	懸而天	懸而天者	懸而天者	懸而天者
55-11	名無也	名無心也	名無心也	名無心也
56- 1	妄念覺破	妄念破覺	妄念破覺	妄念破覺
56- 3	唯須息念	唯須息見	唯須息見	唯須息見
56- 6	如痴如聾	如痴似兀	如痴似兀	如痴似兀

관중 면-행	개원사본 (1598년)	규장각소장본 (1584년 이전)	이충익 장래본 (1699년)	송광사본 (1799년)
56- 7	三曰	三	三	三
56- 8	何害有境	何妨有境	何妨有境	何妨有境
56-11	四曰	四	四	四
56-14	上苑	上園	上園	上園
56-16	五曰	五	五	五
56-17	灌谿	灌溪	灌溪	灌溪
57- 2	此是泯心泯境	此泯心泯境	此泯心泯境	此泯心泯境
57- 4	六曰存境存心	六存境存心	六存境存心	六存心存境
57- 9	七曰	七	七	七
57-13	八曰	八	八	八
58- 1	九曰	九	九	九
58- 2	靈明中內隱空寂 用卽體也	靈明中內隱空寂 用卽體也	靈明中內隱空寂 用卽體也	결략
58- 3	惺惺亂想非	惺惺妄想非	惺惺妄想非	惺惺妄想非
58- 3	無記寂寂非	無計寂寂非	無計寂寂非	無計寂寂非
58- 3	不容無記	不容無計	不容無記	不容無記
58- 7	只做	只作	只作	只作
58- 7	圓陀陀	圓陀陀地	圓陀陀地	圓陀陀地
58- 8	團團	團團	團團	團團
58-11	曾與何法	曾於何法	曾於何法	曾於何法
59- 2	不依形色	依形色	依形色	依形色
59- 5	以心除心	以心除心	後以心除心	後以心除心
59-13	千聖興來	千聖興來	千聖興來	千聖興來
59-14	廻頭	廻頭	廻顯	廻顯
59-14	行住中	行住坐中	行住坐中	行住坐中
59-15	欲仇恨於人	欲讐恨於人	欲讐恨於人	欲讐恨於人
59-16	是有心中事	是有心中事	有心中事	有心中事
59-17	現前也	現前也	現前耶	現前耶
60- 1	若信若爲	若爲若信	若爲若信	若爲若信
60- 4	徧一切處	徧一切處	徧一切處	徧一切處
60- 8	老華嚴	元華嚴	元華嚴	元華嚴
60-10	徧而處	徧而處	徧一切處	徧一切處
60-11	體用斯在	體用斯在	體用所在	體用所在
60-14	脫離生死	出離生死	出離生死	出離生死
61- 4	寔有也	實有也	實有也	實有也
61-15	作筏	作筏	作筏	作筏
62- 8	眞心	眞心	直心	直心
62- 9	或曰	問曰	問曰	問曰
62-10	不惟一念	不唯念	不唯念	不唯念
63- 2	敢着因果	取着因果	取着因果	取着因果

2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1권 제 2호)

판종 면-행	개원사본 (1598년)	규장각소장본 (1584년 이전)	이충익 장래본 (1699년)	송광사본 (1799년)
63- 6	返成	翻成	翻成	翻成
63-10	無心修因	無心爲因	無心爲因	無心爲因
63-10	妄復	妄覆	妄覆	妄覆
63-12	古頌云	古頌	古頌	古頌
64- 3	恒河	河沙	河沙	河沙
64- 4	祖師云	祖師語	祖師語	祖師語
64-10	更不用	便不用	便不用	便不用
64-13	猶是	猶是	未是	未是
64-15	呵佛	阿佛	呵佛	呵佛
65- 1	今見	令見	令見	令見
65- 4	相對境	對境	對境	對境
65- 7	對治	對知	知對	知對
65-10	彌動	彌動	彌勤	彌勤
66- 1	常和光	和光	和光	和光
66- 1	怕爾	怕爾	怕爾	忽爾
66- 5	妄識	妄識	往識	妄識
66-10	細論	細論	細論	境有細論
66-12	眞心	眞心	결략	眞心
67- 2	眞心所住	眞心所往	眞心所往	眞心所往
67- 4	故入	故人	故入	故入
67-11	不合生處	不生處	不生處	不生處
68- 1	然波中	然波中	故波中	故波中
68- 2	一隻	一雙	一雙	一雙
68- 3	卽達	旣達	旣達	旣達
68- 5	必無彼此	必無彼此	別無彼此	別無彼此
68-10	依託	依托	依託	依託
68-13	後所趣	身後所阻	身後所往	身後所往

〈부표 2〉 『修心訣』 諸本の 同異 비교 (면-행은 『普照全書』에 의함)

관중 면-행	개원사본 (1598년)	상백문고본 (1584년이전)	이충익장래본 (1699년)	운주사본 (1432년)	만어사본 (1467년)	간경도감언해 본(1467년)	벽운사본 (1483년)
31- 3	결락 今世之人	若欲求佛 今之人	若欲求佛 今之人	若欲求佛 今之人	若欲求佛 今之人	若欲求佛 今之人	若欲求佛 今之人
31- 5	或問	問	問	問	問	問	問
31-15	答曰	答	答	答	答	答	答
32- 1	知覺	覺知	覺知	覺知	覺知	覺知	覺知
32- 3	臨濟	臨際	臨際	臨際	臨際	臨際	臨際
32- 3	我今不見	我今見	今不見	我今不見	我今不見	我今不見	我今不見
32- 9	今見作用	今見作用	今見作用	今現作用	今現作用	今現作用	今現作用
32-10	在鼻辨香	在鼻辨香	在鼻辨香	在鼻辨香	在鼻辨香	在鼻辨香	在鼻口辨香
32-13	결락	與人有殊何故 今時修心之輩	與人有殊何故 今時修心之輩	與人有殊何故 今時修心之輩	與人有殊何故 今時修心之輩	與人有殊何故 今時修心之輩	與人有殊何故 今時修心之輩
33- 3	결락	無有一人發現 神通變化	無有一人發現 神通變化	無有一人發現 神通變化	無有一人發現 神通變化	無有一人發現 神通變化	無有一人發現 神通變化
33- 7	不名修心	不名修學	不名修學	不名修學	不名修學	不名修學	不名修學
33-10	聞即發悟	聞即發悟	聞即發悟	聞即發悟	聞即發悟	聞即發悟	聞即開悟
33-16	虛通	虛通	虛通	靈通	靈通	靈通	靈通
33-16	是如事上	是如事上	是如事上	是知事上	是知事上	是知事上	是知事上
33-17	妖怪	妖怪	妖怪	발怪	妖怪	妖怪	발怪
34- 1	迷癡之輩	迷癡輩	迷癡輩	迷癡輩	迷癡輩	迷癡輩	迷癡輩
34- 4	自生退屈	自生況屈	自生退屈	自生退屈	自生退屈	自生退屈	自生退屈
34- 5	他人有解悟處	他既有解悟處	他既有解悟處	他人有解悟處	他人有解悟處	他人有解悟處	他人有解悟處
34-10	虛知	虛知	虛知	靈知	靈知	靈知	靈知
34-10	眞佛也	眞佛也	眞佛也	眞佛也	眞佛也	眞佛也	眞佛
34-10	指示入路	指爾入路	指爾入路	指이入路	指이入路	指示入路	指示入路
34-12	雖悟本性	頓悟本性	頓悟本性	雖悟本性	雖悟本性	雖悟本性	雖悟本性
35- 4	不無疑惑	不無疑惑	不無疑惑	不無疑惑	不無疑惑	不無疑惑	不無疑或
35- 9	密密相傳	密密相傳	密密相傳	密密相傳	密密相傳	密密相傳	密密相轉
35- 9	眞謂	眞所謂	眞所謂	眞所謂	眞所謂	眞所謂	眞所謂
35-10	使與人天爲師	便與人天爲師	便與人天爲師	便與人天爲師	便與人天爲師	便與人天爲師	便與人天爲師
35-13	虛知之心也	虛知之心耶	虛知之心耶	靈知之心耶	靈知之心耶	靈知之心耶	靈知之心耶
35-16	或見或聞	或見或聞	或見或聞	或見或聞	或見或聞	或聞或見	或聞或見
36- 6	鴉鳴鶴噪	鴉鳴鶴噪	鴉鳴鶴噪	鴉鳴鶴噪	鴉鳴鶴噪	鴉鳴鶴噪	鴉鳴鶴噪
36- 6	還見	還有	還有	還有	還有	還有	還有
37- 6	故云	故云	故云	故云	故云	故云	故
37- 9	修心人	修心人	修心人	修心人	修心人	修心人	修心之人
37-11	漸成也	漸成耶	漸成耶	漸成耶	漸成耶	漸成耶	漸成耶
37-13	諦聽	諦聽諦聽	諦聽諦聽	諦聽諦聽	諦聽諦聽	諦聽諦聽	諦聽諦聽
37-13	至于今日	至於今日	至於今日	至于今日	至于今日	至于今日	至于今日
37-16	加功着力	仲功着力	中功着力	加功着力	加功着力	加功着力	加功着力
38- 3	便廢	便撥	便撥	便發	便撥	便撥	便撥

관중 면-행	개원사본 (1598년)	상백문고본 (1584년이전)	이충익장래본 (1699년)	운주사본 (1432년)	만어사본 (1467년)	간경도감언해 본(1467년)	벽운사본 (1486년)
38-10	展轉	轉展	轉展	轉展	轉展	轉展	轉展
38-11	兩輪	二輪	二輪	二輪	二輪	二輪	二輪
38-12	若石壓草	如石壓草	如石壓草	如石壓草	如石壓草	如石壓草	如石壓草
38-12	大惑	大惑	大惑	大惑	大惑	大惑	大惑
38-13	婬妄	淫妄	淫妄	淫妄	淫妄	婬妄	婬妄
39-11	遮炤無二	遮炤無二	遮炤無二	遮炤無二	遮炤無二	遮炤無二	遮炤無二
39-15	達人分上	遠人分上	達人分上	達人分上	達人分上	達人分上	達人分上
39-17	吃飯	喫飯	喫飯	喫飯	喫飯	喫飯	喫飯
40- 6	眩換	玄換	互換	互換	互換	互換	互換
40- 7	炤鑑無惑	炤鑑無惑	炤鑑無惑	炤鑑無惑	照鑑無惑	照鑑無惑	照鑑無惑
40-10	炤鑑無惑	照鑑無惑	照鑑無惑	照鑑無惑	照鑑無惑	照鑑無惑	照鑑無惑
40-12	稱無事底人	爲無事人	爲無事人	爲無事人	爲無事人	爲無事人	爲無事人
41- 1	爲兩門	爲兩門	爲兩門	就此兩門	就此兩門	就此兩門	就此兩門
41- 4	自性門也	自性門耶	自性門耶	自性門耶	自性門耶	自性門耶	自性門耶
41- 5	定慧也	定慧耶	定慧耶	定慧耶	定慧耶	定慧耶	定慧耶
41-11	疑惑	疑惑	疑惑	疑惑	疑惑	疑惑	疑惑
41-14	斷惑	斷惑	斷惑	斷惑	斷惑	斷惑	斷惑
42- 1	寂然正受	寂然三受	寂然三受	寂然三受	寂然三受	寂然三受	寂然三受
42- 3	無病不求藥	無病不求藥	無病不求藥	無病不求藥	無病不求藥	無病不求藥	無病不求藥
42- 4	使殺味却	使殺味却	死殺味却	使殺味却	使殺味却	使殺味却	使殺味却
42-10	於生死界	於生死界	於生死界	於生死界	於生死界	於生死界	如生死界
42-13	機勝	機勝	機勝	機勝	機勝	機勝	機勝者
42-16	退屈	退屈	退屈	退屈	退屈	退屈	屈退
43- 2	夙植	宿植	夙植	宿植	宿植	宿植	宿植
43- 3	反招無間	返招無間	返招無間	返招無間	返招無間	返招無間	返招無間
43- 5	蓋人天	益人天	益人天	蓋人天	蓋人天	蓋人天	蓋人天
43- 7	隨黑暗	隨黑暗	隨黑暗	隨黑暗	墮黑暗	墮黑暗	墮黑暗
43-10	人生萬物之靈	生人萬物之虛	人生爲萬物之虛	人生萬物之靈	人生萬物之靈	人生萬物之靈	人生萬物之靈
43-14	貪淫	貪婬	貪婬	貪淫	貪淫	貪婬	貪婬
44- 4	淨心	淨心	淨心	淨心	淨心	正心	正心
44- 5	塵	塵	塵	塵	塵	塵	微塵
44- 6	更向何生	更待何生	更待何生	更待何生	更待何生	更待何生	更待何生
44- 7	今時人	今時人	今時人	今時人	今時人	今時人	今之人
44- 8	王膳	王膳	王膳	王膳	王膳	王膳	王善
44- 8	逢醫王	遇醫王	遇醫王	遇醫王	遇醫王	遇醫王	遇醫王
44- 9	吾未如之何也	吾未如之何也	吾未如之何也	吾未如之何也	吾未如之何也	吾未如之何也	吾未如之何也
44- 9	其狀	其狀可見	其狀可見	其狀可見	其狀可見	其狀可見	其狀可見
44-10	得一事	德一事	德一事	得一事	得一事	得一事	得一事
44-12	野犴	野干	野干	野干	野干	野干	野牛
44-12	獅子	師者	師者	師者	師者	師者	師者
44-15	能生信心	能生信心	能生信心	生信心	生信心	生信心	生信心